

민중미술가 열전 〈정하수〉

1970년대 후반 한국미술은 사회 현실과의 관계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9년 결성된 '현실과 발언'과 광주 '광주자유미술인협회' 등의 활동은 이후 민중미술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 '두렁' 등 현장 중심의 실천이 등장하면서 민중미술은 전시장을 중심으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흐름과, 삶의 현장에서 예술의 역할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되었다. 1985년 이후 민주화운동이 확장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다양하게 확장되었고, 민중미술은 전시장과 사회 현장을 오가며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정하수는 이러한 민중미술의 흐름 속에서 주목되는 작가다.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나 17세에 서울로 올라간 그는 화랑과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다. 직공으로 일하며 부산과 서울을 거쳐 1979년 대구에 정착한 그는 제도적 미술 교육 없이 작업을 시작했으며, 노동의 경험에서 형성된 감각과 현실 인식이 이후 작업의 토대를 이룬다. 1980년대 대구에서 그는 작업실이자 화실이었던 '투명화실'을 중심으로 작가와 학생, 문화운동가들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었다. 그의 판화는 집회와 강연, 소식지와 포스터 등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특히 판화와 공동 작업, 걸개그림 제작 등은 미술이 사회와 만나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미술을 삶의 현실과 연결하려 했던 당시 문화운동의 흐름과도 깊이 맞닿아 있었다.

부산민주공원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이다. 정하수의 작업을 이곳에서 조명하는 일은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실천이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정하수의 작업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시대 현실 속에서 미술의 역할을 어떻게 모색했는지를 조명한다.

정하수의 〈들밥〉

최성규, 미술중심공간 보물섬 대표

1951년 부산에서 태어난 정하수는 어린 나이부터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부산의 '국제 미공사'에서 상패와 배지를 만드는 일을 통해 그는 철을 다루는 법과 조각을 익혔다. 17세 때 서울로 올라가 엠보싱 벽지회사에 취직해서 문양을 위한 틀을 제작하며 향후 그의 작품의 중요한 매체인 판화와 부조의 토양을 만들었다. 그는 노동을 통해 평생을 이어갈 작품의 기술과 감각을 익혔다. 독학으로 익힌 미술 공부는 그를 현대미술에 눈뜨게 하였지만, 서양미술의 개인주의에 경도되지 않고 가족의 이야기와 한국적 전통에 뿌리를 둔 작품으로 나아갔다. 습작기에 속하는 정하수의 1970년대 작품은 '인간', '노동', '가족'이 주된 주제였다. 1979년 11월 대구에 정착한 정하수는 〈인간전〉(1984), 〈지금 우리는...〉(1985)전에 참여하였고, 1985년 '우리문화연구회'에서 출간한 분단시대 동인의 판화시선집에 21점의 판화를 제작, 수록하였다. 정하수가 주도한 1987년 〈열린 판화전〉은 대학으로 민중미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민중미술은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하수에게 현장 중심의 미술은 '진실한' 것이었고, 노동자들의 주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작품과 재능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1989년 민미련건준위가 제작한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에 공동대표로서 정하수는 '6.25 전쟁'과 '여순반란사건'을 제작하였다. 이를 이유로 정하수는 1987년 여름 연행, 구속되었다. 옥고를 치른 그는 대구 인근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에 손수 작업실을 지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작품을 이어갔다. 대구경북 민족미술인 협의회의 주축이었던 그는 2006년 예술마당 솔에서 그의 미술 경력 30년 만에 첫 개인전을 가졌다. 2006년 개인전 이후 2018년 〈아트클럽 삼덕〉에서의 개인전까지 오랜 공백기간을 가진 정하수는 다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강통을 편 철판에 강필로 드로잉한 작품은 1970년대 첫 노동을 통해 배웠던 철을 누르고 펴고 다뤘던 경험의 연속이며 80년대 치열한 현장미술을 거쳐온 굳건한 의지의 결과다.

2026 민주화운동 주제전시
민중미술가 열전

정하수 Jung HaSu



2026.
4.14.—5.31.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필쳐보임방

관람시간 09: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1부. 1970년대

정하수는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노동 현장에서 삶을 시작했다. '국제미공사'에서 상패와 배지를 제작하며 철을 다루는 법과 조각의 기초를 익혔고, 이후 서울의 벽지 회사에서는 엠보싱 틀을 제작하며 손의 감각을 확장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의 판화와 부조 작업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17세 때 서울로 올라간 그는 미술학교 대신 화랑과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독학으로 미술을 익혔다. 직공으로 일하며 부산과 서울을 오간 경험은 이후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형성했다. 제도권 밖에서 축적된 감각은 그의 작업을 노동과 삶에 깊이 연결했다.

1970년대는 정하수 작업의 형성기로, 추상화를 비롯해 노동과 도시의 거리에서 출발한 시도를 보여준다. 이 시기 그의 작품은 '인간', '노동', '가족'을 주요 주제로 삼으며, 삶에 기반한 표현으로 나아간다.



맨발
1972
캔버스에 유채 후
합판에 부착
24×34cm



농부가족
1976
종이에 연필
56×50cm

2부. 1980년대

1980년대는 정하수의 작업이 사회 현실과 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였다. 1970년대 말 대구에 정착한 그는 지역 미술가들과 교류하며 '투명화실'을 중심으로 작가와 학생, 문화운동가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은 판화 자료와 영상이 공유되는 토론의 장이었다.

1983년 〈회화 9인전〉을 시작으로 〈인간전〉(1984), 〈지금 우리는...〉(1985)에 참여하며 지역 민중미술의 흐름 속에서 활동했고, 판화 제작과 시민판화교실 등을 통해 실천을 확장해 나갔다.

1987년 이후 그의 작업은 전시장을 넘어 집회와 노동 현장으로 향했다. 판화는 소식지와 포스터, 유인물로 활용되며 민주화운동과 문화운동의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하며 공동 창작 작업을 이끌었고, 같은 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그의 미술은 시대와 연대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살육
1984
캔버스에 유채
180×110cm



어머니의 손국수
1985
종이에 목판
31×52cm

3부. 1990년대 이후

1989년 구속 이후 정하수는 경북 청도로 내려가 작업실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작업을 이어갔다. 이 시기 그의 작업은 목탄, 콘테, 파스텔, 연필, 크레파스 등 다양한 재료를 넘나들며 민중의 삶과 노동의 감각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알루미늄 강통을 편 철판에 강필로 그린 작업은, 노동을 통해 익힌 손의 감각과 재료에 대한 경험이 이어진 결과이다.

2006년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오랜 공백을 지나서 2018년 개인전을 통해 다시 작업을 선보였다. 그 사이 두류 공원에서 드로잉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업은, 삶과 노동의 시간을 응축한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갯벌에서
2018
종이 위에 연필,
파스텔
29.5×42cm



가시나무새
2018
알루미늄에
철판 드로잉
13×20cm